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영랑생가	3
영랑의 시혼이 살아 숨쉬는 영랑생가	3

영랑의 시혼이 살아 숨쉬는 영랑생가

중요민속문화재 제252호인 영랑생가는 우리나라 대표 서정시인 영랑 김윤식 선생의 생가를 1985년 강진군에서 매입하여 원형 그대로 보존관리해오고 있다.

생가에는 시의 소재가 되었던 샘, 동백나무, 장독대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항공VR



영랑 김윤식 선생(1903~1950)은 남도의 사투리를 음악성있는 시어로 표현한 서정시인이자 단 한줄도 친일문장을 쓰지 않은 민족시인으로 1903년 1월 16일 이곳에서 김종호의 2남 3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때에는 채준으로 불렸으나 윤식으로 개명하였으며 영랑은 아호인데 문단활동시에는 주로 이 아호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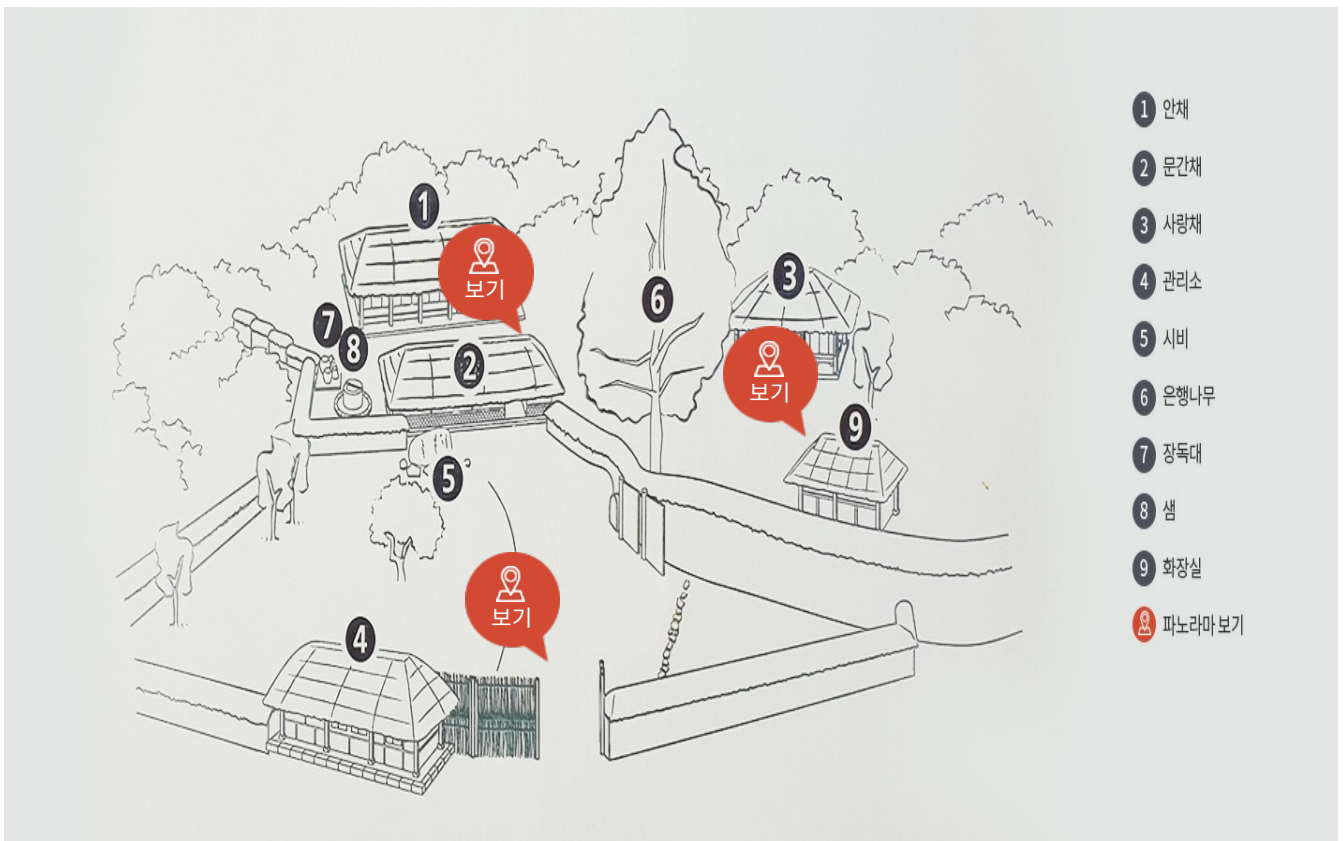
영랑 선생은 1950년 9월 29일 작고하기까지 주옥같은 시 80여편을 발표하였는데 1930년 3월 창간한 '시문학'지를 중심으로 박용철, 정지용 등과 더불어 현대시의 새 지평을 열었다.

선생은 생애 87편의 시를 남겼으며 그중 60여편이 일제강점기에 참씨개명 등을 거부하고 이곳 영랑생가에서 쓴 것이다.

(<http://www.gangjin.go.kr>)



영랑생가는 1948년 영랑이 서울로 이거한 후 몇 차례 전매 되었으나 1985년 강진군에서 매입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데 안채는 일부 변형 되었던 것을 1992년에 원형으로 보수하였고, 문간채는 철거 되었던 것을 영랑 가족들의 고증을 얻어 1993년에 복원하였다. 생가에는 시의 소재가 되었던 샘, 동백나무, 장독대, 감나무 등이 남아 있으며 모란이 많이 심어져 있다.





모란꽃



단풍나무



사랑채



장독대



시비



샘





COPYRIGHT © GANGJIN GUN. ALL RIGHT
RESERVED.

GANGJIN

Web Contents

